

蘇骨과 骨蘇

金 鎮 玖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Sokol*(蘇骨) and *Kolso*(骨蘇)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V. 蘇骨과 折風
I. 緒論	V. 骨蘇
II. 蘇骨 骨蘇의 定體와 特徵	VI. 結論
III. 蘇骨의 名稱과 周邊語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key features of *Sokol*(蘇骨) and *Kolso*(骨蘇)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 between *sokol* and *kolso*.

A Comparative linguistic method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Also, *sokol*(蘇骨) and *julpoong*(折風)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kol* and the *julpoong*.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sokol* and the *kolso* were identical head coverings used by the nobility of Koguryo.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sokol* and *kolso* were that these two head coverings were made of purple *ra*(羅) and were decorated with gold and silver.

The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sokol* and the *kolso* were not of Koguryo's native words. These words were derived from its neighboring words.

The *sokol* and *kolso* were transliterations of neighboring words.

The *sokol* and the *julpoong* were different head coverings : The *sokol* was for the nobility while the *julpoong* was for a man of lowly position.

I. 緒 論

蘇骨과 骨蘇란 말은 中國 古史書에 高句麗의 冠名으로 보이는 말이다. 蘇骨과 骨蘇에 關한 記錄은 다른 中國古史書의 高句麗에 關한 記事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말이고 단지 蘇骨은 北史 列傳 高句麗 條에 骨蘇는 周書 異域 高麗條에만 간략하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蘇骨과 骨蘇에 關하여 正確히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研究도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蘇骨에 대한 研究는 李如星의 研究가 있다. 그는 蘇骨의 명칭과 語源을 우리말에서 찾았으며 蘇骨을 折風과 同形일 것이라고 推斷하였다(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pp. 190-193).

蘇骨의 명칭과 어원에 대해서 李如星은 蘇骨은 寫音對字로 *sok-got*이며 *sok-got*은 「속곳」으로서 이 語源은 속(*sok*)은 솟(*sot*)의 變音으로 聳音의 意요 곳(*got*)은 갓의 轉訛라고 認定되는 것으로서 冠帽의 意 卽 속곳(*sok-got*)은 聳立한 冠帽라는 것이라고 解析하였다(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 190). 李如星의 蘇骨의 명칭과 어원해석은 그 이후 학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복식用語는 복식이 可觀的이고 실용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한 지역 또는 문화권에서 다른 지역과 문화권으로 가장 쉽게 모방되고 전파될 수 있으며 그것은 언어 가운데서도 가장 전파되기 쉬운 면이 있다. 많은 服飾과 服飾名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 이상으로 그 전파의 범위가 넓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

그것들은 분명 누군가가 처음 고안해서 입었고 이름을 부쳤겠지만 많은 복식과 복식名은 그 근원을 모를 때가 흔히 있다. 어떤 하나의 衣服은 전파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옷 이름과 같게 또는 비슷하게 그 받아들여지는 곳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풀로 바뀐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衣服名으로 뜻이 바뀔 때도 있다. 同一한 집단이나 문화권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복식名을 연구할 때 그 주변어에서 그것들과 유사하거나 같은 풀과 意味를 가진 어휘들을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本 研究에서는 蘇骨과 骨蘇의 定體와 特徵을 규명하고 蘇骨과 骨蘇와 유사한 말들을 주변어에서 찾아내고 이 두 單語를 주변어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高句麗의 蘇骨과 骨蘇는 高句麗의 固有語가 아니라는 가정 아래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II. 蘇骨·骨蘇의 定體와 特徵

蘇骨에 關하여 北史 列傳 高句麗 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人皆頭着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其冠曰 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北史 高句麗 條에 의하면 蘇骨은 貴者의 冠名이고 그것의 특징은 紫羅를 使用하여 만들었다는데 있다. 紫羅로 만든 蘇骨을 金銀으로 裝飾하였다고 하는데 高句麗 貴者의 冠을 金銀으로 장식한 예는 나중에 論하겠지만 蘇骨 以外에도 많이 있다. 貴者의 冠에 紫羅를 使用하였다

는 記錄은 隋書 列傳 東夷傳 高麗 條에도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라 보인다.

위의 隋書에 보이는 貴者의 紫羅冠은 冠名이 나타나지 않지만 北史 高句麗 條에 言及된 蘇骨이란 冠帽임이 確實하다. 隋書 高麗 條의 貴者의 紫羅冠에 관한 原典은 北史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北史와 隋書에 보이는 高句麗의 貴者란 말은 그 뜻을 正確히 알 수 없다.

다만 舊唐書 列傳 高麗條와 新唐書 東夷 列傳 高麗 條의 記事에 의거하여 볼 때 北史와 隋書의 高句麗 貴者란 官品이 높은 자리에 있는 貴者를 意味한 것은 아닌 것으로 解析된다.

舊唐書와 新唐書의 高句麗 條의 記錄을 보면 다음과 같다.

舊唐書 列傳 高麗條에 官之貴者 則青羅冠 次以緋羅 插二鳥羽及金銀爲飾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國人衣褐載弁.

新唐書 列傳 高麗條에 大臣 青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釳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載弁.

위의 두 史書에 의하면 新唐書의 高句麗 記事는 舊唐書의 것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舊唐書에서 官之貴者라고 모호하게 기술한 것을 新唐書에서는 大臣이라고 官名을 밝히고 있다. 高句麗 官名에 大臣이란 官名은 나타나지 않는다. 大臣이란 말은 漢人들이 使用한 用語로서 그들 나름대로 高句麗의 十二品 또는 十三品 官職中에서 大臣級에 속하는 제일 높은 官職의 官品을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

위의 두 史書로써 高句麗의 官之貴者는 即 大臣이며 이들이 使用했던 冠은 青羅冠이었고 그 다음으로 貴한 사람은 緋羅(絳羅) 冠을 使用했고, 앞에 引用한 北史와 隋書의 紫羅冠과 같이 또한 그것을 金銀으로 裝飾했었던 것이다.

高句麗 王은 白羅冠을 썼고(舊唐書 東夷 列傳 高麗 新唐書 東夷 列傳 高麗), 大臣은 青羅冠을 썼으며, 그 다음級에 속하는 높은 벼슬의 사람은 緋羅(絳羅) 冠을 썼다.

그러면 金銀飾 紫羅로 만들어진 蘇骨(多)이란 冠을 使用하였던 高句麗의 貴者는 어떤 사람을 지칭했을까란 의문이 남는다. 官職에 있지 않고 官品은 없지만 王보다는 아래이고, 大臣 못지 않게 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王族男子들-即, 王世子, 王子, 王子君, 王의 兄弟들과 王妃의 父나 叔父 또는 그녀의 兄弟들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은 官吏는 아니지만 貴者中 貴者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金銀飾 紫羅冠 即 蘇骨多를 使用하였던 高句麗의 貴者는 王 以下이며 大臣 못지 않은 貴者 即 王世子, 王子, 王子君, 君 등의 王族 男子들이라고도 解析된다. 그들은 官職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確實히 大臣보다 더 貴한 사람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은 周書 高麗 條의 記事에 대한 論議에서 더 論하겠다.

周書 異域 高麗 條에는 北史 高句麗 條의 蘇骨(多)과 두 글자의 순서만 바뀐 骨蘇(多)라는 冠名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丈夫衣同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 其冠曰骨蘇多 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插二鳥羽 其上以顯異之.

北史 高句麗 條에 의하면 蘇骨(多)은 貴者의 冠名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의 特徵은 紫羅를 使用하여 만들고 金銀으로 그것을 장식한다는 것이다. 周書의 骨蘇(多)에 對한 說明에서는

骨蘇(多)가 丈夫 卽 一般 成人 男子의 것이라고 한 사항은 北史와 다르지만 骨蘇(多)도 紫羅를 使用하여 만들고 金銀으로 그것을 장식한다는 내용은 같다. 그리고 周書에서는 官品이 있는 者는 骨蘇(多)에다 二鳥羽를 꽂아서 그것으로 官品이 없는 者와 區分을 짓는다고 하고 있어 다른 史書와 北史에서는 모든 사람이 쓰는 弁形 折風이라는 것에다 士人은 二鳥羽를 加插한다고 한 것과 다르다. 周書 異域 高麗 條의 骨蘇(多)에 대한 說明은 論理上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史書와의 記述과도 상치된다. 周書에 丈夫 卽 一般 成人 男子의 冠 卽 骨蘇(多)는 紫羅로 만들고 그것을 金銀으로 장식한다고 한 내용은 논리상 맞지 않다. 古代에 東西를 막론하고 여러 색깔 中에서도 紫色은 가장 얻기 힘들고 염색하는데 가장 값비싼 色이었을 뿐더러 거기에도 또 비싼 金銀을 가지고 장식한 冠을 一般 庶人 男子가 使用한다는 것은 있음직한 일이 못된다. 뿐만 아니라 高句麗人의 冠의 材料로 使用되었던 羅도 王冠 또는 官品이 높은 官吏의 冠의 材料로 使用되었던 것이다.

周書 高麗 條에서 丈夫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衣服名들은 다른 史書들에 의거하면 그것들은 王과 貴者의 衣服名인 것이다.

周書 異域 高麗 條에 보이는 丈夫衣同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라는 기록과 같은 기록을 다른 史書에서 찾아보면 앞에서 이미 引用된 北史 高句麗 條에 貴者其冠曰 蘇骨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라고 되어 있다.

隋書 列傳 東夷傳 高麗 條에도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라고 되어 있다.

또한 舊唐書 列傳 高麗 條에도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官之貴者 則青羅冠 次以緋羅 插二爲羽及金銀爲飾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國人衣褐載弁.

新唐書 東夷 列傳 高麗 條에도 大臣 青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釧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載弁 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周書에서 丈夫가 입는다고한 衣服名은 다른 史書에서는 貴者의 衣服名으로 나타날까? 周書의 同袖衫 또는 袖衫이란 衣服은 무엇인가? 骨蘇(多)란 말은 北史의 蘇骨(多)와는 관계가 없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筆者는 周書 異域 高麗 條의 丈夫衣 同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 其冠曰 骨蘇多 以紫羅爲之에서 앞의 史書들에 의거하여 大夫筒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 其冠曰 骨蘇多 以紫羅爲之로 정정한다. 丈夫는 大夫의 誤記이고 同袖衫은 筒袖衫의 誤記인 것이다. 同袖衫 또는 袖衫이란 衣服은 漢衣服名에도 없다. 同袖衫은 筒袖衫이다.

三國史記, 下, 卷 40 雜志職官에 左輔 右輔 大主簿 國相 九使者 中畏大夫라고 하는 官職名이 보인다. 여기에 보이는 中畏大夫란 官職名이 周書 高麗 條에 보이는 大夫의 誤記인 丈夫로서 이것은 中畏大夫의 앞 두글자를 생략한 것으로 解析된다. 만약 周書 高麗 條의 大夫란 말이 高句麗의 官職名이 아니라면 漢人式의 官名이나 爵位名 또는 그 외의 意味일 수 있다. 漢人의 大夫란 말은 여러가지 뜻이 있고 또한 時代에 따라서도 그 뜻은 다르다. 그러나 周書가 中國에 正史書이고 바로 옆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周書의 丈夫란 기록은 高句麗 官名인 大夫 卽 中畏大夫를 생략한 것이란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周書 異域 高麗 條의 丈夫를 大夫로, 同袖衫을 筒袖衫으로 고치면 周書의 高句麗에 관한 기록은 다른 史書의 高句麗에 대한 기록과 잘 合致된다.

周書의 骨蘇多와 北史의 蘇骨多의 定體에 대하여는 이 두 이름으로 나타나는 冠은 同一物이라는 것이 위에서 訂正한 것으로써 確證되었고 아울러 骨蘇多도 丈夫 卽 一般 成人 男子의 冠名이 아니고 大夫 卽 貴者의 冠名이라는 것도 규명되었다.

蘇骨多와 骨蘇多라고 하는 名稱에 대하여 보자

蘇骨多라고 하는 冠名은 北史 列傳 高麗 條에만 나타나고 骨蘇多라는 冠名은 周書 異域 高麗 條에만 보인다.

周書는 北史와 그 저작 연대가 唐 貞觀初年(627 A.D.)으로 同一하다. 그런데 北史에서는 貴者의 冠名을 蘇骨(多)이라 하고 그것은 紫羅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한다고 한 反面, 周書에서는 丈夫의 冠을 骨蘇(多)라 하여 그것을 紫羅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한다고 하였다.

北史와 周書의 蘇骨(多)과 骨蘇(多)는 글자가 앞뒤 순서만 다를 뿐 같다. 그렇다면 蘇骨(多)과 骨蘇(多)는 同一한 冠帽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 것인가? 蘇骨(多)과 骨蘇(多)中 한가지 이름만 있는데, 北史와 周書中 한쪽의 기록이 틀렸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또한 위의 두 史書의 기록은 우리를 혼동되게 만든다.

周書의 骨蘇다가 北史의 蘇骨多의 誤記일 것으로 보는 見解가 있다.

骨蘇多와 蘇骨多是 두 단어의 글자가 같고 앞두자의 순서만 바뀌어 있으므로 그러한 假定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物件이 두 가지 이름으로 지칭되는 일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同一한 冠에 두 가지 이름이 부여되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例들은 服飾名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物品의 명칭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可能性이 있으므로 우리는 高句麗의 周邊語에서 骨蘇(多)와 비교할 수 있는 말을 찾아 보아야 할 必要가 있다. 服飾用語는 다른 用語보다 傳播되기 쉬운 特性이 있기 때문이다.

骨蘇多의 名稱과 주변어를 찾아서 比較하는 일은 骨蘇 項에서 다룰 것이다.

通典 東夷에 高麗樂工人 皆紫羅帽飾以鳥羽라고 되어 있고 舊唐書 高麗 音樂條에도 高麗樂工人 紫羅帽 飾以鳥羽라고 보인다. 高句麗 樂工人의 鳥羽飾에 대해서는 二鳥羽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고구려 벽화에는 鳥羽飾의 方法도 여러가지여서 어떻게 장식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樂工人의 紫羅帽가 貴者의 紫羅冠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舊唐書의 기록으로 볼 때 冠과 帽라는 말은 區別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貴者의 고구려 樂工人의 鳥羽로 장식된 紫羅帽와 貴者의 蘇骨(多)이라는 관모는 別個의 것으로 해석된다.

Ⅲ. 蘇骨의 名稱과 周邊語

蘇骨(多)이란 말은 漢語가 아님이 確實하다. 高句麗語의 音相이 漢音으로 蘇骨과 가까운 말을 漢語로 音譯한 말이다. 蘇骨(多)란 말은 中國의 古代服飾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蘇骨(多)의 漢古음을 보면 다음과 같다.

蘇字

William, so, sok

Karlgren, *suo*

「廣韻」素姑切「集韻」「正韻」孫粗切 音蘇 *su*

「集韻」山於切 音梳角^{干聲} *shu*

「字彙補」蘇故切 音係遇^{去聲} *suh*

위의 예에서 보면 蘇字는 漢古音으로 *so, sok, suo, su, shu, suh* 등으로 표음되었다.

骨의 漢古音은 *kok, kot, kuət, guq, ku* 등 이었다. 즉 그 예는 아래와 같다.

William, *kok, kot*

Karlgren, *kuət*

「廣韻」「韻會」古忽切. 「集韻」吉忽切 音汨 月^{入聲} *guq*

「唐韻」古忽切, 「集韻」吉忽切, 沓 音汨.

『康熙』*ku²*

多音은 다음과 같다.

「廣韻」「正韻」得何切「集韻」「韻會」當何切 歌^{平聲}

duo, to¹

위의 예에서 볼 때 蘇骨(多)의 漢古音은 여러가지로 표음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 語音에 제일 가까운 것이 어느 품이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蘇骨(多)과 유사한 말들을 우리 주변 言語에서 찾아 내어 그것들을 蘇骨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蘇骨의 고구려 語音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蘇骨과 유사한 말들을 우리 주변어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Maggar 語 *csákó*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csákó süveg*, 더 정확히 *csakos süveg*의 준말인데 peaked cap을 의미한다. *csakos*는 adj.이고 f. 는 *csák*이며 peak라는 뜻이다. 이 Hung. *csákó*란 말은 Ger. *zacke, a peak, point, zacken* (point, spike)에 있다고 Hungary 학자들은 믿고 있는 말이다. Hung. *csákó*란 말은 품이 蘇骨과 유사하고 그 意味도 고구려 관모의 특징인 peaked cap 또는 pointed cap과 같다.

Hung. *csákó*란 peaked cap 이름은 Eng. *shako, schakos, scako, chaco, chako*, Fr. *schako*, Ger. *tschako* 등으로 퍼져 나갔다.

또한, 蘇骨(多)와 同一한 품은 Fr. *chouque, chouquet*, [f. *souche* (nautical)], *chouquette*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 말들은 cap의 뜻이다.

Gr. *sakkos* (즉 술이 달린 pointed cap)도 蘇骨(多)과 거의 같은 품이며 뜻도 고구려 冠帽形의 특징인 pointed cap과 합쳐진다.

Gr. *sakkos*는 Heb. *šaq*에서 왔으며 Heb. *šaq*는 Ass. *šakku*, sackcloth에서 유래했다. 또, 한편으로 Heb. *saq*는 Coptic *sok*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Ass. 어로는 *sakku(saqqu)* 즉 sack, sackcloth이다. Aramaic 어로는 *saqqa*, Syria 語로는

*saga*이다. 이 말은 거의 모든 Teut. 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Eng. sack의 근원도 Heb. *saq*에 있다. 卽 Eng. sack의 발달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sack < ME. *sak* < OE. *sacc* < OHG. *sac*, Goth. *sakkus* < early Gmc. borrowing < L. *saccus*, a bag, LL. (Ec.) a sackcloth garment < Gr. *sakkos* < Heb. *śag* < Ass. *šakku*, sackcloth

영어 sack의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다.

11C. ~ *sacc*, *sæcc*

11~12C ~ Pg. *saco*, It. *sacco*

13C. ~ *sec*

16C. ~ north, *seik*

13~16C. ~ *sakke*

14~16C. ~ *sek*

15C. ~ *sac*, *cek*, *sacoke*

OHG. *sac*, *sach*는 對格複數가 *secchi* 이고 ON.은 *sekk-r*이다. OHG. 形과 ON. 형들은 先史時代의 類形(type) *sakki-z*를 가리킨다. 中世라틴어는 *saccia* (Gr. *śakkos*)이다.

고구려語 蘇骨의 풀과 뜻을 對比시킬 수 있는 말은 Sthythia 語와 몽고語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종족이지만 스키타이인(Scythian)의 帽子(cap)가 있는데 그것은 *siqur*라고 불리는 것이다.

스키타이語 *siqur*라는 말과 同一한 말은 18世紀 몽고어에서도 발견된다. 즉 日傘을 시쿨(*siqur*)이라 하였는데, 現代 몽고語로도 hat, umbrella를 *siqur*라고 칭한다. 現代 몽고語 *siqur*은 18세기 몽고어 *siqur*의 변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키타이어 *siqur*과 몽고어 *siqur*, *siqur*는 유사한 것을 주변어에서 찾아보면 *siqur*은 ON. *sekk-r*, sack와 그 풀이 아주 유사하다. 스키타이어 *siqur*, 몽고어 *siqur* 시쿨, *siqur*도 그 명칭과 어원이 sack와 同一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앞에 例示된 우리나라 北部지역의 方言 즉 *sap-kwe*, *sak-kwe*, *sak-ke*, *sakk'a*, *sapkwae*, *satkwae*와 *sapka* (Russ, Turk.)의 명칭과 어원도 sack와 同一한 근원을 가지고 있는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 역사 학자들이 스키타이인이라고 불렀던 北方 야만족을 이란族은 Saka라고 불렀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란족 자신들이었다. 스키타이인은 B.C.750~700 사이에는 南러시아에까지 진출하였다. 그들은 西쪽으로는 다뉴강과 東쪽으로는 예니세이 河의 上流까지 달하였다. 스키타이인은 Scythian style이란 독특한 예술양식을 남겼다.

스키타이족은 그들이 殷나라 文化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古代文化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발견된다. 韓羊鳥 南部에서의 樂浪時代 이전의 遺物 즉 銅鐸, 銅鈴, 動物意匠帶鉤 등에서 Schjtho-Siberia 文化的 要素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弁狀 冠帽와 衣

服의 加襖樣式 등에서도 Scytho-Siberian 文化的 要素가 발견된다.

스키타이人是 사라졌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cap 名 *sigur*라는 말은 남아 있고, 그들의 옛 접경 지역에 있었던 흉노족의 후예인 몽고족의 언어에도 *siqur*, *sigur*라는 같은 말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자못 흥미있는 일이다. 스키타이語와 몽고語에서 발견되는 *sigur*라는 말은 두 言語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인접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말을 다른 한쪽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키타이語에서 몽고語로 갔는지 몽고語에서 스키타이語로 갔는지 확실하기는 어려우나 文化的 흐름에서 볼 때 스키타이語에서 몽고語로 왔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蘇骨(多)과 같은 뜻을 가진 말에 *sacos* (또는 *socos*)라고 하는 印度語가 있다. 이 *sacos* 또는 *socos*라는 말은 hyacinth color를 의미한다. Hyacinth color란 卽 紫色을 말한다. 印度語 *sacos* (또는 *socos*)란 말은 이미 A.D. 1세기경 부터 로마인에게 까지 알려졌던 말이었다.

高句麗의 王과 官品이 높았던 貴者의 冠의 材料로는 羅를 使用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階級과 品級의 差異를 同一한 材料인 羅라도 그것의 色에 두었던 것은 이미 舊唐書 列傳 東夷 高麗 條와 新唐書 列傳 東夷 高麗 條를 引用한 것에서 본 바이다. 卽 高句麗의 王은 白羅冠을 썼으며 官之貴者는 靑羅冠을 썼고 그 다음 官品의 사람은 緋羅冠을 썼다(舊唐書 列傳 高麗).

新唐書 東夷 列傳 高麗 條에는 大臣이 靑羅冠을 썼고 그 다음 높은 官品에 있는 사람이 絳羅冠을 썼다고 한다.

高句麗 貴者의 冠名으로 나타나는 蘇骨(多)이란 冠은 위에서 例示된 王의 白羅冠 大臣 또는 官之貴者의 靑羅冠, 그 다음 官職이 높은 사람의 緋羅冠(또는 絳羅冠)과 같이 그 材料는 同一한 羅였으나 蘇骨(多)이란 冠에는 紫羅가 使用되었다는 것이다.

蘇骨(多)이란 冠의 가장 特徵의인 面은 바로 紫色이라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蘇骨의 가장 特徵의인 面을 나타내는 紫色 (Hyacinth color)이란 말인 印度語 *socos* (또는 *sacos*)를 高句麗人은 그들 貴者의 冠名으로 삼았을 것이다.

蘇骨 또는 蘇骨多是 印度語 *socos* (또는 *sacos*)의 音譯으로 보인다. 蘇骨 또는 蘇骨多是 *socos(sacos)*와 그 音相이 尙致되고 또한 *socos(sacos)*는 蘇骨(多)의 가장 特征적인 面인 紫色과도 그 意味가 一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蘇骨(多)과 對比시킬 수 있는 말들은 주변어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語源 또한 多樣하므로 蘇骨(多)이라는 高句麗語의 根源이 주변에서 발견되는 pointed cap 또는 peaked cap을 意味하는 Gr. *sakkos* 또는 Hung. *csákó*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Gr. *sakkos*가 Heb. *sag* < Ass. *šakku*에 있는 것 같이 蘇骨(多)도 Heb. *saq*나 Ass. *šakku*와 같이 더 이른 말들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北部地方 方言中에서 帽子的 方言을 보면 아래와 같다.

Sap-kwe }
Sak-kwe } 咸南 咸興 以北 地域과 平北 一部 地方에서 쓰임.
Sak-ke }

Sakk'ā ~ 咸南

Sapkwae ~ 咸北(경원, 경흥, 나남, 부령, 무산, 종성)

Satkwaē ~ 咸北(청진, 부거)

Sattae ~ 咸北(성진, 길주, 명천, 경성, 회령)

咸南(신고산, 안변, 덕원,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 오로, 신흥, 흥원, 북청, 이원, 서천, 풍산, 갑산, 해산)

平北(강계, 자성, 후창)

Turk 語로 hat, cap을 *sapka*라 하고 Russia 語로 帽子를 шапка(러시아어)라고 한다. 이 Turk 語와 Russia 語는 뜻과 意味가 같다.

이미 앞에서 본 咸境道와 平北地方의 帽子의 方言은 Turk 語 *sapka*, Russia語 шапка와 거의 같은 말이다. 이 方言을 Russia 語에서 由來된 말이라고 하는 學者도 있으나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apka*라는 帽子 이름은 Russia 語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Turk 語에도 있으며, 우리나라 北部地方의 帽子方言으로 앞에 예시된 말들은 高句麗의 蘇骨이 方言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IV. 蘇骨과 折風

蘇骨에 관하여 北史와 周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人皆頭着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冠曰 蘇骨多 紫羅爲之 飾以金銀 (北史 列傳 高句麗 條)

骨蘇에 관하여는 周書 異域 高麗 條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丈夫衣同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 其冠曰 骨蘇多 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插二鳥羽 其上以顯異之

위의 北史와 周書의 相反된 기록의 해석에서 李如星은 折風과 蘇骨을 同一物로 理解하고 折風과 蘇骨의 基本形態는 同一할 것이라는 推斷을 하였다.

中國 古史書에 折風에도 二鳥羽로 장식하였다고 보이고 蘇骨(多) 또는 骨蘇多에도 二鳥羽를 꽂아서 장식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折風과 蘇骨다가 同一冠帽일 것이라고 보기도 쉽다.

李如星이 蘇骨(多)과 折風이 同一物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앞에 引用된 北史의 高句麗에 관한 기록에서 모든 사람이 쓰는 折風과 貴者の冠인 蘇骨多를 同一物로 보았고 또 한편으로 周書에서 高句麗人 丈夫의 冠을 骨蘇多라 하고 官品이 있는 者는 그것에 二鳥羽를 꽂는다고 한 기록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蘇骨의 形態에 대해서 李如星은 折風弁과 蘇骨은 形態上 相似한 것(p. 191) 또는 基本形態는 同一한 것(p. 191) 折風과 蘇骨은 別物이 아닐 것이라고 推斷하였다(p.193).

蘇骨과 折風이 基本形態가 設령 비슷하거나 同一하다고 가정하더라도 折風과 蘇骨은 別物인 것이다. 그것은 北史 列傳 高句麗 條에 明白히 보이는 것이다. 折風은 모든 사람이 쓴다 하였고 蘇骨(多)은 貴者의 冠名이라 하였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周書의 高句麗 記事에 있는 丈夫는 丈夫의 誤記이기 때문에 周書

의 丈夫의 冠名으로 보이는 骨蘇多是 北史의 高句麗 記事에 보이는 蘇骨多와 같이 高句麗 貴者의 冠名인 것이다.

折風은 賤者의 冠名이었고 蘇骨多와 骨蘇多是 貴者의 冠名이었다.

蘇骨의 形態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문헌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鎧馬塚 벽화에는 貴者로 보이는 人物이 紫色인듯한 高頂弁形冠帽을 쓰고 있는데 帽體에 장식이 있고 二鳥羽를 加插한 것이다. 혹시 이 人物의 冠帽가 蘇骨일지도 모른다. 蘇骨이란 高句麗語가 peaked cap 또는 pointed cap 이란 뜻인 Hung. *csákó*나 Gr. *sakkos*나 또는 peak point를 意味하는 G. *zacke*와 對比되는 말이라고 가정한다면 蘇骨의 形態는 끝이 뾰족한 冠帽였다고 할 수 있다.

高句麗人의 鳥羽飾은 官之貴者나 大臣의 青羅冠과 그 다음 차례로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緋羅冠(絳羅冠) 등에도 金銀飾과 함께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貴者의 冠 全部가 折風이라고는 어디에서도 그 記錄을 찾을 수 없다. 高句麗 王冠이 白羅冠이라고 하는데 그 白羅冠에 二鳥羽飾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有官品者일 때 紫羅로 만들어 金銀飾을 한 蘇骨(多)에다가 二鳥飾을 더하기도 했다. 卽 官品을 갖지 않은 貴者(王世子, 王子, 王子君 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貴者가 만약 官品을 가진다면 그때에는 有官品者의 표시로서 二鳥羽飾을 더 했다는 解析을 할 수도 있다.

骨蘇(多)와 折風이 둘다 二鳥羽를 插飾한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同一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折風은 賤者의 冠이라고 나타나 있다. 北史와 같은 7世紀에 저술된 韓苑 蕃夷部 高麗 條에 다음과 같이 있다.

佩刀礪而見 等威 飾金羽以明貴賤梁職貢圖云 高麗婦人衣白而男子衣結 金飾以金銀 貴者冠幘而無後 以金銀爲鹿耳加之幘上 賤者冠折風

오히려 折風은 賤者의 冠이라고 나타나 있다.

北史 列傳 高句麗 條의 蘇骨에 金銀飾을 한다는 金銀飾이란 어떤 것인지 위에 例示된 韓苑의 記錄에서 貴者의 幘을 金銀으로 鹿耳를 만들어 加한다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冠은 白羅冠 青羅冠 緋羅冠처럼 冠字를 부쳤고 樂工人의 것은 같은 材料인 紫羅로 만들었지만 紫羅帽라고 한 것을 보면 貴者의 羅冠과 樂工人의 紫羅帽는 그 形態가 다른 冠帽였던 것 같다. 樂工人의 紫羅帽는 折風이라 불렀던 것일 수도 있다.

V. 骨 蘇

김방한 교수는 周書에 보이는 고구려의 冠帽名인 骨蘇(多)의 어원을 모른다고 했다(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90. p. 19). 骨蘇의 명칭에 대해서 白南雲은 그것을 끝에 쓰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朝鮮社會經濟史, p.230).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骨蘇와 유사하거나 또는 같은 풀과 의미를 가진 낱말을 우리 주변어에서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복식 용어는 언어 중에서도 가장 전파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姜吉云 교수는 骨蘇多라는 명칭과 어원에 대해서 骨蘇多를 몽고어 요수 투와 연결시켜서 요수, 투(yosu tu)의 鄉札로 *yastutu* 紫羅라고 보았다(姜吉云, 古代史의 比較言語學的研究, 새문사, 1990, p. 230). 그는 몽고어 요수 투를 羅紗라고 해석하였는데(姜吉云, 古代史의 比

較言語學的研究, 새문사, 1990, p. 230) 몽고어 요수 투 마라가 가 李朝語로 紗帽로 번역된데서 (몽어유해 上, 42) 요수 투 (yosu tu)를 羅紗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몽고어 요수 투 (yosu tu)란 말은 羅紗란 뜻이 아니고 禮란 뜻이다.

朝服을 요수 투 紉차수 라고 하며 (上揭書) 朝靴를 요수 투 紉靱이라고 하고(方言집석 p. 133). 禮物을 요수 투 야구마라고 한다(上揭書, 40).

위에서 본 朝服, 朝靴란 日常用 服飾이 아니다. 이것들은 禮服用인 것이다. 그러므로 요수 투 마라가(紗帽)란 몽고어는 요수 투 + 마라가의 複合語로서 禮 + 帽란 뜻이며 요수 투라는 말은 禮라는 뜻이지 紗 또는 羅紗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확증된다.

우리 주변언어에서 고구려어 骨蘇(多)와 비교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그것을 骨蘇(多)와 대응시켜 보도록 한다. Ass. *kuseu*가 있는데 이 말은 headdress or cap, *agu*의 뜻이다. 이 말은 또한 full moon (as tiara of moon-god?)의 뜻도 있다. Sub.는 *kuseu*, *kubsu*, *agu*이다. Heb. *kusu*(Aram. *kusa*)는 hide, cover의 뜻이고 Ass. *kusu*는 cover의 뜻이며, Heb. *kusea*는 covering, Heb. *kuseatu*는 covering, clothing, Heb. *kusatu*는 band, fillet의 뜻이 있다.(Ass. *kusitu*는 garment의 뜻이다.)

위에서 볼 때 Ass. *kuseu* (headdress or cap), *kusu* (cover), Heb *kusu* (hide, cover), *kusea* (covering)는 고구려어 骨蘇와 유사 내지 同一音이고, 骨蘇를 骨蘇多로 한다면 이 말은 Ass. *kusitu* (garment), Heb. *kuseatu* (covering, clothing), Heb. *kusatu* (band, fillet)와 유사한 말이다.

Ass. *agu* (cap)라는 말은 韓濬의 海東繹史 麗人謂笠爲輓이라 한 것의 輓(*yaq*)과 거의 같은 음인데 高句麗語 輓은 Ass. *agu*와 같은 음인 것을 漢音으로 輓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輓 字는 漢音으로 *yaq* 외에 *yah*, *yeon*, *yet*, *ap*, *at*, *gar*, *gaq* 으로도 발음된다.

Causia, A Thessalonican travelling hat for men and women-Ancient Greece

Caissia, Lacedonian head-dress

이와 같이 骨蘇 또는 骨蘇多라는 고구려어는 古代 Assyria 語, Aramaic 語, Thessalonica 人과 Lacedonia 人의 帽子 이름, 히브리어 등과 비교할 수 있는 말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고구려 固有語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VI. 結 論

이상의 結果에서 結論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蘇骨은 高句麗 貴者의 冠名으로 紫羅를 使用하여 만든 것으로서 거기에 金銀飾을 加한 것이었다. 그러나 金銀飾 冠帽는 高句麗의 官品이 높은 官吏의 冠에도 使用되었다.

高句麗 貴者의 冠 가운데서 金銀飾冠이면서 다른 色羅로 만들어진 冠은 白羅冠, 靑羅冠, 緋羅冠, 絳羅冠 등이 있었고 貴者의 羅冠中에서도 特別히 紫羅로 만들어진 冠을 蘇骨(多)이라고 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蘇骨의 特徵은 金銀飾 羅冠中에서도 그 冠을 만든 主材料의 色 卽 紫色에 있었던 것이다.

貴者の 蘇骨과 賤者の 折風은 異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蘇骨(多)의 古音を 漢音으로 재구성해 보면 *so, sok, suo, su, shu, suh* 등의 蘇音에다 *kok, kot, kuət, guq, ku²* 音과 거기에 多音 *to'*을 각각 조합한 것 같이 여러 音으로 표음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여러 音 중에 고구려 語로 어느 音으로 표음된 것을 漢語로 蘇骨(多)로 音譯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위에서와 같이 蘇骨多의 표음은 여러가지로 재구성하여 볼 수 있다. 이것들과 類音 내지 同音을 가진 말들과 그 뜻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Hung. *csákó* peaked cap, pointed cap.
 Eng. *shako*
 Fr. *schako*
 Gen. *tschako*
 Fr. *chouque, chouquet*, [f. *souche*(nautical)], *chouquette* cap.
 Gr. *sakkos* Pointed cap
 Heb. *saq(u)* sack, sackcloth
 Ass. *sakku(saqu)* sack, sackcloth
 Aram. *saqqa* sack, sackcloth
 Syrian. *saqa* sack, sackcloth
 OHG. *sac, sach*
 ON. *sekk-r*
 ML. *saccia*
 L. *saccus* a bag. LL. (Ec.) sackcloth garment
 Ind. *sacos(socos)* Hyacinth color 紫色
 Scythian *siqur* cap
 Mong. *siqur* 日傘(18C)
 siqur hat, umbrella
 Tunk. *sapka* hat, cap
 Russ. *sapka* cap
 Kor. *sap-kwe*
 sak-kwe }
 sak-ke } 北部地方의 方言
 sakka }
 sapkwaē }
 satkwaē }

蘇骨(多)의 여러 漢古音 가운데서 주변어와 그 音과 意味가 가장 가까운 말은 hyacinth color 卽 紫色이란 뜻의 古代 印度語 *socos(sacos)*이다. 蘇字 *so, sok*와 骨字 *kot*를 합하면 *sokot, sokkot*가 되는데 末音 *t*는 *socos*의 末音 *s*와 호환적이다. 예를 들면 갓, 갓갈과 같은 우리

말은 갈, 곧갈과 같이 쓰기도 하였다. 갓, 옷이란 말의 人 ㅍ은 현재도 *kas, os*라고 해야 하는 s ㅍ을 *kal, ol*등으로 ㅍ 寫하고 있다. 蘇骨 두 字만 있어도 또는 그 뒤에 多字가 있어도 末 ㅍ의 t ㅍ은 있다.

이 印度語 *socos*란 말은 *sacos*라고도 하는데 이말은 Gr. *sakkos* 와도 그 ㅍ이 같아서 흥미롭다.

骨蘇(多)는 貴者의 冠名이고 蘇骨(多)의 異名으로서 蘇骨(多)와 骨蘇(多)는 同一物이다.

高句麗語 骨蘇는 Ass. *kusû, kuseû*, Aram. *kusa*, Heb. *kusu, kusea*, Thessalonica人의 *Causia*와 Lacedonia人 *Caissia* 등과 그 ㅍ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 이중에서 骨蘇와 그 意味도 일치하는 것은 headdress 또는 cap의 뜻인 Ass. *kuseû*로 확인되었다. Ass. *kusitu* (garment), Heb. *kuseatu* (covering, clothing), *kusatu* (band, fillet)도 骨蘇多와 그 ㅍ이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高句麗語 蘇骨(多)과 骨蘇(多)는 그것들과 유사한 말들을 주변어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蘇骨(多)과 骨蘇(多)는 高句麗의 固有語가 아니었다.

參考文獻

姜吉云, 古代史의 比較言語學的 研究. 새문史, 1990.

康熙字典

高麗史

舊唐書

金芳漢, 韓國語의 系統. 민음社, 1990.

南史

蒙語類解

方言輯釋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北史

三國志

隋書

新唐書

梁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구려사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魏書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周書

通典

韓濬, 海東繹史

翰苑

後漢書

Karlgren,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William, S. 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